



금호아시아그룹 창업자 고(故)박인천 회장의 자택을 단장한 '금호시민문화관'이 5일부터 광주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광주 도심 속 근사한 조각공원이 생겼어요

錦湖市民文化館

금호 창업주 자택, 금호시민문화관으로 오늘부터 무료 개방
공원같은 잔디밭에 아름답디 수목·조각 작품·연못 어울러

삭막한 광주 도심에 근사한 문화공간이 생겼다. 아름답디 수목과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쉬어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5일 금호아시아 그룹(회장 박삼구)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금호시민문화관'은 광주 사람들에게 흔히 '박인천 회장 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4일 먼저 둘러본 문화관에 들어섰을 때 든 느낌은 두 가지였다. 이전에도 술하게 저택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점과, 마치 공원처럼 잘 꾸며졌다는 점. 넓은 잔디밭과 곳곳에 자리한 조각들, 수련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과 분수대, 그리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정자까지. 작은 조각 공원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문화관 사방으로 높이 솟아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면 새삼 이곳이 도심 한복판이고, 이 공간이 도시의 '숨구멍'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룹측은 현재의 금호아시아 그룹을 키워준 시민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금호시민문화관(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212번지)은 금호아시아그룹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이다. 주택 본체는 1931년 한옥 형태로 처음 건축됐고 박 회장과 부인 이순정 여사 등 가족들은 1951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이후



가족들이 살았던 주택 본체.



조영자 작 '과거와 미래에 있음'

몇 차례의 증·개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창업 초기에는 회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쉼터 역할도 했던 이곳은 의제 허백련 등 서화(書畵)의 명인들과 국창 임방울, 명창 신영희 등 당대 국악인들을 초청, 예술활동을 격려하고 남도 문화예술회관을 후원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박회장은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를 슬로건으로 1959년 축호학원을, 1977년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교육·문화 기부를 실천해왔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은 박회장의 뜻을 받아 기존 주택 부지 이외에 주변의 땅을 사들여 총 5523㎡ 대지 위에 조각 공원을 조성, 시민에게 돌려주려 준비하던 중 2008년 경제 위기로 투자가 중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화관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넓은 잔디밭이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눈이 시원해진다. 본체 뒤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군데 군데 정자와 벤치가 마련돼 있어 느긋하게 커피 한잔 마시며 쉬어가면 좋을 듯하다. 소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호랑가시나무, 싸리나무, 철쭉 등 다양한 나무와 꽃들도 눈에 띈다. 봄여름가을겨울 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광주시민들을 만나게 될 터다.

구석구석에는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14점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 팔레 드 루아얄

정원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전시회를 가진 심문섭 작가의 '무제', 두 남녀의 모습이 인상적인 문옥자 교수의 브론즈 작품 '설레임'과 '무제' 도화희 작가의 '반상', 어깨에 올라탄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김영원 작가의 '중력·무중력', 조영자 작가의 '과거와 미래에 있음' 등이다. 또 김찬식·정관모·엄태정·김홍근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띈다.

신발을 벗고 본체에 들어서니 날썩한 방과 식당 등이 보인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서까래가 그대로 보이는 높은 천정이다. '1931년 5월12일 기둥을 세운 후 마룻대를 올려 집의 기둥을 세운다'는 상량문도 걸려 있다. 바로 앞에 자리한 2층집은 1958년 기존 사랑채를 헐고 양옥형태로 신축한 공간이다. 우리 나라 근현대 시기에 대가족이 함께 살았던 행태의, 전통적 주거 개념과 현대적 주택 설계가 조화된 양식으로 현재 근대건축물로 문화재 등록이 진행 중이다.

한편 4일 열린 개관식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 박회장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셨던 고 박인천 회장의 철학을 이어받아 금호시민문화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이 공간이 예향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방 시간 ▲5-8월 오전10시-밤9시 ▲3-4월, 9-10월 오전10시-오후 8시 ▲1-2월, 11-12월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개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삶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행

광주 이화갤러리 16일까지 최순임 초대전

최순임 작가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사업에 선정돼 요코하마에 머물렀다. 낯선 장소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작업의 영감을 줬다.

최순임 작가 초대 기획전이 오는 16일까지 광주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은 '즐거움 여행'이라는 뜻의 불어 'Bon voyage'다.

그녀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건 의인화된 고양이이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고양이를 통해 특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최작가는 요코하마에서 조선통신사 마상제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고양이와 사람이 말을



'길 위의 노래'

을 드러낸다. 평면 회화 속에도 등장하고 다양한 포즈의 조각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가운데 등장한 대형 오르골 작품이 눈에 띄며 고양이 등 트레이트 마크를 활용한 오르골 조각은 소품으로 만들어 판매도 한다. 그밖에 유쾌한 드로잉 작품들도 전시했다.

전남대예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광주아시아아트작스튜디오 입주작가를 지냈으며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 특별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2124-337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인 첫 베네치아비엔날레 특별상 전수천 작가 별세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은 설치 미술가 전수천(사진)이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1세.

전북 정읍 출신인 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포기했다. 뒤늦게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일대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 무사시노 미술대 회화과를 수료하고, 와코대 예술학과 미국 프랫대 대학원을 다녔다.

1993년 대전엑스포 상징 조형물인 '비상의 공간'을 만든 고인은 베네치아비엔날레에 처음으로 한국관이 마련된 1995년 특별상을 수상했고, 그해에 국립현대



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고인은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7박 8일 동안 열 안 천으로 덮은 여차를 타고 북미 대륙을 횡단한 '움직

이는 드로잉-영원한 민족 비전의 선' 프로젝트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과 동시에 미술원 교수로 임용돼 2011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퇴임 후 전주에 창작예술학교 AA(Art Adapter)를 세웠고, 지난 여름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 '사유의 공간'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점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평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